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로 농어촌인력난 해소

올해 396명 배정...필리핀 근로자 17명 1차 입국 오는 10일 24명 2차 예정...지난해 2배이상 많아

해남군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필리핀 산마테오 계절근로자 17명이 1차로 입국하여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고, 인권보호·범죄예방 교육 후 농가에 배치되었으며, 오는 10일에는 필리핀 지엠에이 계절근로자 24명이 2차로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및 숙소점검 등을 통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로부터 396명(농업 266, 수산 130)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작년에 입국한 근로자 156명보다 2배이상 많은 인원이다. 또한 올해부터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을 통해 바쁜 영농철에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명현관 군수는 "고령화된 농어촌 마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내년에도 고용주 재입국 추천을 통해 우리 군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3년 연속 LPG 배관망 구축사업 선정 고군면 오류·지산면 길은 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8억원 투입

진도군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고군면 오류·지산면 길은마을이 확정되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125가구가 거주하는 고군면 오류마을과 지산면 길은마을은 국·도비 3억 등 총 18억을 투입, 올해 6월 착공 후 12월 완공 예정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LPG 공급망을 개설한다.
진도군은 지난 2021년 진도읍 송현마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0개 마을 967가구에 국·도비 42억 등 총 120억원을 투입, LPG를 공

급하고 있다.
특히 LPG 배관망을 통한 가스 공급률이 전체 24%(진도읍 58.7%)까지 확대되며, 마을 단위를 넘어 면 단위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스를 주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기존 LPG 가스통과 등유 보일러에 비해 30~40% 가량의 연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성공 결실'

지난해 상가간판 정비 등 경관개선...보행로 설치공사·(가칭)장흥누리센터 착공

장흥군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23년 성공적인 결실을 앞두고 있다.
군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년여에 걸친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계획위원회의 컨설팅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하였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총 120억 원(국비지원 사업)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은 크게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여력강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으로 ▲장흥누리센터 신축 ▲배후 마을회관 개축 ▲가로(街路)정비 사업 ▲세대공감 간판정비 ▲공동체 활성화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3월 378개소 상가 간판정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어 9월에는 배후(背後)마을 지원으로 장흥읍 성불2구, 송암, 덕덕2구의 마을회관 개축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덕인주차장 부근 주민센터 부지에 (가칭)장흥누리센터가 2월 중 착공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흥누리센터(3층, 연면적1,308㎡)는 주민들

의 거점 공간으로써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동아리방, 마을방송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또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이 될 생약초 피부관리 테라피실을 조성해 주민복지 증진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장흥읍 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가로 정비 사업으로는 장흥로(정하APT-파출소)와 중앙로(군청~군민회관)에 인도를 조성한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중앙로의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주민의견 수렴과 농식품부 중앙계획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당초 계획부터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만든 계획"이라며, "장흥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카드 수수료 지원

완도군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 씩, 총 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청자축제 연계, 강진읍 상가 둘러보기 특별 이벤트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개최를 기념해 강진읍 상가 사은행사가 강진오감통 음악장작소 광장에서 열린다.
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 하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강진읍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상가로 유도하기 위해 광 없는 돌림판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축제기간인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청자축제 현장에서 강진군 캐릭터인 '강이', '진이'와 사진을 찍거나 청자축제를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해시태그 강진청자축제'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 광 없는 돌림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손목띠를 받는다.
이들 강진읍 오감통 행사장에서 보여주면

최소 강진사랑상품권 5천 원에서 1만 원, 골드마 응모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돌림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전량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행사로는 오감통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절약 실천을 위한 자전거 숲사탕 체험, 청자 낚시, 도자기 신데렐라 찾기, 액자 제작 체험, 버스킹이 열린다.
이와 함께 축제장 내 강진읍 상권 특산물 홍보, 풍선배부, 축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고객 사은행사 등의 강진읍 상가 고객 유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이자 처음

으로 도전하는 겨울축제인 만큼, 축제장과 강진읍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은행사를 통해 강진청자축제를 성공으로 이끌고, 강진읍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